



효봉(孝峰, 1888~1966) 스님

법상에 올라 말씀하셨다. 우리 형제가 동서남북에서 모두 여기 모여 왔으니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이고, 부처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곧 부처인데 무엇 때문에 부처가 부처를 구하려는가. 그것은 바로 물로써 물을 잊고 불로써 불을 끄려는 것과

인연에 두고 옳고 그름 판단 말라

효봉 스님

법계 모든 것이 자기 재량 일념으로 수행하면 대장부

갑거늘, 아무리 구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여러 대중은 다행히 저마다 일없는 사람을 좋아하면서 무엇 때문에 고통과 죽음을 스스로 만드는가. 그것은 들것을 찾다가 육을 떨어뜨려 부수는 격이니, 만일 그렇게 마음을 쓰면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이다. 각자의 보를 창고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 그 끝없는 수용(受用)을 다른 데서 구하지 말라.

한 법 도취할 것이 없고 한 법도 버릴 것이 없으며, 한 법의 생멸하는 모양도 볼 수 없는 것이니, 지금부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쉬어 버리면, 은 허공계와 법계가 털끝만한

것도 자기의 재량(財糧)이 아닌 것이 없을 것이다. 만일 이런 경지에 이르면 천불(千佛)이 세상에 나오더라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니, 생각지도 말고 찾지도 말라. 내 마음은 본래 청정한 것이니라. 만사를 모두 인연에 맡겨 두고 옳고 그름에 아예 상관하지 말라 허망한 생각이 갑자기 일어나거든 한 칼로 두 동강을 내어 버려라. 빛깔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본래 공안에 헛갈리지 말지니 만일 이와 같이 수행하면 그는 세상 뛰어난 대장부이리.

그런데 그 속의 사람은 고요하고 한적한 곳을 가리지 않는다. 내 마음이 쉬지 않으면 고요한 곳이 곧 시끄러운 곳이 되고, 내 마음이 쉬기만 하면 시끄러운 곳도 고요한 곳이 된다. 그러므로 다만 내 마음이 쉬지 않는 것을 경정할 것이요, 경계를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경계는 마음이 아니요 마음은 경계가 아니니, 마음과 경계가 서로 상관하지 않으면 결립 없는 한 생각이 그 앞에 나

타날 것이다.

우리 형제들이 삼 년이나 몇 십년 동안에 바른 눈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소견에 집착하기 때문이니, 그럴 때는 선지식을 찾아 공안을 결택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에 그런 선지식이 없을 때에는 고인(古人)의 어록(語錄)으로 스승을 삼아야 하느니라. 또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은 묵언(默言)하는 일이니, 아는 이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이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옛 사람의 말에, 말도 많고 생각이 많으면 가는 곳마다 걸린다 하였으니 이 어찌 믿지 않을 것인가. 그대가 고향에서 왔으니 아마 고향의 일을 알 것이다. 떠나는 날 그 비단장 앞에 매화꽃이 피었는가? 주장자로 선상을 한번 옮기고는, ‘맑은 밤 삼경에 별들이 반짝이고 강성(江城) 오월에 매화꽃 떨어지네.’ 하고 자리에 서 내려 오시라.

자기생각 집착이 깨달을 걸림됨 만사를 인연에 맡겨 두고 옳고 그름에 상관하지 말라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거든 한 칼로 두 동강을 내라.

신심으로 법 들으면 지혜문 열려

동산 스님

공부 열심히 하면 三學 원만 사람이 다름 뿐 마음 본래 평등

하루종일 창 앞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고(虛日窓前滿面睡) 밤이 되면 예전처럼 늙은 쥐를 잡는다(夜來依舊捉老鼠)

공부인은 계명을 깨닫기 가져야 한다. 더러 보면 계를 우습게 여기고 불조의 말씀을 신(信)하지 않는 이가 있다. 부처님이 그렇게 행한 일이 없고 조사가 그렇게 한 일이 없다. 해(解)와 행(行)이 분명해야만 한다. 만일 해와 행이 나누어지고 각각 다를 것

같으면 이것은 온전함이 아니다. 참으로 공부를 여실히 지어 나가면 저절로 제정해(戒定慧) 삼학(三學)이 원만해진다. 제(戒)란 별 것이 아니다. 미(迷)해서 잃었던 내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 때가 곧 계이다.

그렇게 알면 곧 정(定)이 있고, 정(定)이 있을 때 계가 나는 것이며, 도(道)가 있을 때 계가 나는 것이며, 도(道)가 있을 때 계가 함께 나는 것이니, 정과 계와 도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물은 한 물이나 하나는 독이 되고 하나는 짙이 된다. 같은 한 마음을 가지고 법을 듣는데 한 사람은 지혜를 이루고 한 사람은 도리어 번뇌망상의 독해(毒害)를 이루니 들는 바 법은 하나인데 한편에는 지혜가 되고 다른 한 편에는 번뇌의 독해가 되니 왜 그런고? 이 마음은 본시 뚜렷하여 어디는 있고, 어

디는 없고, 어디는 더 생각하고, 어디는 덜 생각하고 하는 치우침이 없고 본래 평등하여 피차(彼此)가 없는 것이다. 법이 다른 것이 아니요, 사람이 다른 것이다.

참으로 바로고 철저한 신심으로 마음을 순종하여 법을 듣는 사람은 지혜를 이룰 것이고 그 마음을 거슬러 순종치 않으면 지혜가 변하여 번뇌망상의 독해가 되는 것이다.

본래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뒤를 것이 없는 걸 알고 뒤야야 바로 뒤는 것이지, 뒤를 것이 있는 줄 알고 뒤으면 바로 뒤지 못한 다.

삼계는 오직 마음이니, 한 마음의 가운데 무슨 성취가 있었는가? 현관을 지나도 예스런 선지식을 찾아가 답을 확인하는 ‘감변’ 해마다 해마다 좋은 해, 달이던 달마다 좋은 날, 날이던 날마다 좋은 날, 때마다 때마다 좋은 때이니, 무슨 간해야 옳이오리오.

가야산 상봉에는 달이 처음 떴고(伽山上一初月상)

홍류동 계곡에는 물이 만 리나 흐르네(紅流洞下水萬里).

일상 생활서 每事 깨달으면 부처

경봉 스님

삼독에 밝음 잃어 말·행동 장애 애착 버리면 사바세계 삶 원만

이다. 마음 외에 부처가 따로 없고 부처 외에 따로 마음이 없으니 부처와 마음이 둘이 아니다.

마음 청정한 게 바로 부처이다. 우리의 마음자리가 본래 맑고 밝은 것이지만 근본 무명인 탐(貪) 진(瞋) 치(癡) 삼독 때문에 밝음을 잃어 버려서 말과 행동이 거울에 때가 낀 것처럼 된다.

우리는 이 사바 세계를 무대로 연극을 한 바탕 멋들어지게 하다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멋들어지게 하는 것인가 하면, 가령 연극 배우가 비극의 배역을 맡았을 때는 마음에 먼 생각을 다비우고 자신이 그극중 배역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는 연기야이란 관객이 감명 받을 것이다.

사바세계에서 각자가 맡은 배역을 잘 해 내려면 물질과 사람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빈 몸, 빈 손으로 왔는데 공연한 탐욕과 쓸데없는 망상으로 모든 근심이 시작되는 것이다. 선(禪)이란 마음 가운데 모든 망상을 제거하고 진여(眞如)의 본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가운데 화기(火氣)를 내리고 청정한 물기운(水氣)을 조화시켜 주는 것이니, 망상을 쉬면 물 기운이 오르고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여진다.

그러나 만약 망상을 쉬지 못하면 불기운

이 항상 위로 올라가 온 몸의 물 기운을 태우고 정신의 광명까지 닳는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몸은 마치 기계와 같아서 사대의 기운이 아니고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사람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육근 기관(六根機關)은 거의 두뇌 쪽에 있으니 자연히 두뇌로 화기가 집중되어 온 몸의 물 기운을 졸이고 태우는 게 마치 등불을 켜면 기름이 닳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므로 노심조사하여 무엇을 오래 생각하거나 자세히 보든지 소리를 높여 발을 하면 반드시 열감이 뿜어지고 입안이 바짝 마르지 않는다.

이것이 곧 불기운이 위로 오르는 현상이니 당연 할 일이 육근 기관을 쓰는 것도 조절해 가며 써야 하거늘 하물며 쓸데없는 망상을 풀어서 두뇌에 불을 받냈으므로 커녕 되었다는 거.

나라고 하는 그 나를 참으로 아는가 모르지는가. 괴롭다. 아반삼경에 발바닥이나 들어다 보거라.



발심에서 인가까지 문답은 계속된다

1:1로 마주 앉아 개인별 지도 “장애해결 지름길”

“집중수행 기간에는 반드시 지도법사와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위빠사나 선원들의 수련자 모집 안내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다. 남방 불교에서는 수련회 등 집중수행이 있는 때는 거의 매일 또는 격일로 선원장이나 지도법사가 수행점검 및 지도를 해준다. 정진중에 특별한 경험을 했거나 어떤 장애에 부딪혔을때 선지식의 지도점검을 받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간화선을 위주로 수행하는 조계종에서는 스스로 하는 ‘자기점검’ 이외에 선지식에게 받는 ‘지도점검’이 일부 선방을 제외하고는 형식화되거나 사라진 곳이 적지 않은 게 현실. 이런 가운데 일부 선원이나 참선 공부모임에서 위빠사나의 수행점검 풍토에 자극받아, 선종 고유의 공부 과정을 되찾고 있는 곳이 늘고 있다.

조사의 기본적인 공부과정은 선(禪)을 공부해 본성을 깨닫기 위해 결심하는 ‘발심’, 제방의 선지식을 찾아가 법을 묻는 ‘참문(參問)’, 선지식의 대답을 듣고 생길 의문을 해결하려는 ‘참구(參究)’, 참구의 결과 해답을 얻어 선지식을 찾아가 답을 확인하는 ‘감변’

해마다 해마다 좋은 해, 달이던 달마다 좋은 날, 날이던 날마다 좋은 날, 때마다 때마다 좋은 때이니, 무슨 간해야 옳이오리오. 가야산 상봉에는 달이 처음 떴고(伽山上一初月상) 홍류동 계곡에는 물이 만 리나 흐르네(紅流洞下水萬里).

27 번째 주팔 참선 원화정진을 하고 있는 선우회는 화계사 조실 승산 스님이 회원들을 상대로 일대일 ‘공안 인터뷰’로 점검을 해왔다. 최근에는 승산 스님으로



선도회 지도법사 박영재 교수(서경대)가 ‘일심 지도’ 하는 모습.

부터 인가받은 선우회 회장 권유리님 보심이 대신 점검을 하고 있다.

현대의 선지식이었던 해안 스님의 가풍을 이어온 전등사 전등선림 역시 매달 15일 새벽, 스님과의 독대를 통해 수행 점검이 이뤄지며, ‘경회(警責)’과 ‘격려’라는 스님의 처방이 주어진다. 신도들은 수행 점검이 단 하루도 수행을 소홀히 할 수 없게 하는 커다란 힘이라고 말한다.

종말 이화의 거사가 1965년 조직한 선도회 역시 ‘일심(入心) 지도’라는 일대일 점검체계를 이어오고 있다. 초보자들은 수식관 등 번뇌망상을 제거하는 기초수행부터 지도받지만, 구참자들은 무문관

(無門關; 남송 무문에게 스님의 공안집) 48칙(則)을 화두로 들고 체합한 경계를 점검 받는다.

다수의 제자를 대상으로 문답을 통해 수시로 수행을 점검하는 단체들도 늘고 있다. 한국선원 회장 수불 스님은 선어록에 자주 등장하는 ‘죽은 문자’(사구) 대신, 지금 이 자리에서 손가락 등을 통해 ‘살아 있는 화두’(활구)를 던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문답을 통해 개개인에게 적합한 지도점검을 해준다. 원정선원 회장 대우 거사와 법기회 강정진 지도법사, 명상 아카데미 설립자 해봉 거사는 정기법회를 설법과 문답을 통해 진행한다. 법문을 듣다가 의문나는 점이냐 정진 과정에서 부딪친 경계를 문답을 통해 스스로 해결토록 지도한다.

이러한 지도점검과 함께 자기점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 사이버 생활수행도량인 ‘목탁소리’(moktak-sori.com)는 평소 일터에서 정진하다가 3주에 1번씩 모여 ‘밝은 모임’이라는 수행점검

시간을 갖는 한편 매일 사이버도량에 수행일기를 올리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매일 수행상담을 하는 양평 법랑정사(cafe.daum.net/sorisan) 주지 청견스님은 지난해 5월 12일 입재한 ‘100만명 매일 수행점검표’를 나눠주고 있다.

선상담연구원장 인경 스님은 ‘간화선에서는 스승과의 실제적인 ‘문답과 점검’이 절대적인 생명이 된다. 오늘날 간화선 수행풍토가 새롭게 살아나기 위해서야 바로 ‘지금 여기’에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선 이끌 차세대 선지식들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사선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 불교는 선방에서 묵묵히 수행하는 수좌들로 그 선택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광복 이후 조계종의 선풍을 느꼈던 것은 성철, 청담 스님 등이 주도한 ‘봉암사 결사’ 세대였다. 조계종 풍정 법전 스님은 봉암사

결사에 참여한, 살아 있는 마지막 세대다. 동시대의 총독총림 수덕사 방장 원담, 황대선원 조실 성수, 화계사 조실 승산, 용화사 법보선원장 송담, 선학원 이사장 정일,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 등은 한국을 대표하는 선상을 풀어서 두뇌에 불을 받냈으므로 커녕 되었다는 거.

나라고 하는 그 나를 참으로 아는가 모르지는가. 괴롭다. 아반삼경에 발바닥이나 들어다 보거라.

사 선등선원 현산, 법주사 흥지선원장 합주, 쌍계사 선덕 도현, 봉암사 태고선원장 정광, 남국선원장 해국, 원명선원 회주 대호, 극락암 선원장 명정, 송광사 선원장 현묵스님 등이 선맥(禪脈)을 지키고 있다.

또 미 육조사 주지 현웅, 상원사 선원장 의정, 범어사 선원장 인각, 동화사 선원장 지환, 통도사 선원장 천진, 월명암 선원장 일오, 내소사 선원장 현산, 전 기초선원장 영진 스님도 많은 수좌들로부터 존경받는 중진 스님들이다. 그리고 현기, 대선, 기승, 윤경, 정광, 성재, 활선, 정묵, 현진, 상경, 정찬.

대선, 기승, 윤경, 정광, 성재, 활선, 정묵, 현진, 상경, 정찬. 지근, 지현, 영선, 일수, 영진, 지범, 석곡, 종우, 황환, 월인, 호성, 영인, 종도, 보설, 중앙 스님 등이 수좌들의 전범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쟁한 선사와 드러나지 않게 공부하는 수좌들의 면면은 ‘선지식 부재’라는 세간의 잘못된 인식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후학들의 사표가 되어 수행을 점검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지식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 시인선원	
단체명	연락처
갑사 선방	(041)857-8981/2
정인사	(055)256-5450
공소사	(031)246-1001
광주 지비선학회	(062)222-1165
금강선원	(02)445-8484
길상사	(02)3672-5945
대구구도회	(053)256-8589
대자암	(041)857-5800
대전구도회	(042)524-2157
도선사	(02)993-3161
동화사	(053)982-0101
맑고경기롭게 대구모임	(053)753-8883
망해암	(02)3674-5559
묘심선원	(02)523-8005
미타사	(02)662-4736
범어사	(051)508-3122
법연사	(02)733-5322
법왕사	(053)766-3747
보리수선원	(02)928-2844
보현사	(02)254-6966
봉선사	(031)527-7951
봉은사	(02)516-5652
부산 금화사	(051)582-3042
부산불교교육원	(051)466-4080
불광사	(02)413-6060
서울 강남포교원	(02)539-2631
석탄사	(063)538-1268
선학원	(02)732-3327
수선회	(02)732-5960
수원포교당	(031)255-2692
안국선원	(051)892-9877
안성 도파안사	(031)676-8700
여여선원	(051)740-6288
영남불교대학	(053)472-6288
영주 부석사	(054)633-3464
용화사	(041)124-2159
용화선원	(031)872-6061
울산 학성선원	(052)271-5352
임계선원	(02)888-6937
전남 보광사	(063)763-1192
전등사 전등선원	(02)762-0643
전북불교대학	(063)226-7878
정각선원	(031)903-9628
정토수련원	(054)571-6031
제주 남궁선원	(064)733-2278
조계사	(02)732-2183
지지사	(054)436-6606
통도사 부산포교원	(051)816-224
통도사 보살선원	(055)383-8334
학성선원	(054)71-5352
한국불교연구원	(02)3411-6167
한마음선원	(031)470-3100
해운정사	(051)746-2256
해인사 백련암	(055)932-7300
해인사 월당암	(055)932-7308
홍련암	(063)263-6072
흥제사 황령선원	(055)382-1181
화계사	(02)902-2693
황대마을선원	(055)963-9551

수행문답 사이트		
단체	인터넷 주소	대표자
원정선원	www.fuoyee.or.kr	대우 법사
무심선원	www.mindtree.net	김태관 법사
이미타라	cafe.daum.net/amitapa	정목 스님
위빠사나	vipassana.buddhism.org	묘한 법사 등
소리산참선원프	cafe.daum.net/sorisan	청견 스님
관수련회	www.kwan.or.kr	구선 스님
마하수련원	www.mahazen.org	벽공 스님
선림도량	www.daedosun.pe.kr	운거 스님
여래선원	www.buddhania.cc	부다미야 스님
호두마을	www.vmcow.org	해연 스님 등
안국선원	www.aahnkookzen.org	수불 스님
촉사사	www.chooksansa.org	무어 스님
침나찾기교육원	www.minsoozen.pe.kr	박민수 법사
초기불전연구회	www.chobul.com	대림 스님
바라보기명상	www.paraboki.net	박석 법사
명상아카데미	www.bodhitao.com	해봉 법사